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안보·인적교류 등 협력 강화

## 韓-필리핀 정상회담

尹 대통령 “관계의 새로운 장 열어  
방산 협력, 필리핀 군 현대화 참여”  
라구나호수 도로·해상교량 건설에  
대외경제협력기금 20억 달러 사용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수교 75주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정부는 필리핀과 원전 협력을 재개하고, 약 2조7000억원을 투입해 필리핀의 대형 인프라 사업을 원조하기로 했다.

필리핀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 중인 윤 대통령은 7일 필리핀 말라카냥궁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오늘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님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한-필리핀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1949년 수교를 맺은 양국이 공식적인 양자 관계를 설정하고 이에 관한 정상 차원의 공동문건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번 공동문건 채택을 통해 양국은 ▲안보 ▲경제협력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충 ▲인적교류



윤석열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필리핀 말라카냥 궁에서 한-필리핀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지역 및 국제문제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두 정상은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필리핀의 군 현대화 3단계 사업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기로 했다”며 “오늘 체결된 해양협력 MOU(양해각서)를 통해 해상 초국가 범죄 대응, 정보 교환, 수색구조와 같은 해양안보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층 활성화해 양국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작년 9월 서명된 한-필리핀 FTA(자유무역협정)를 조속히 발효시켜 양국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필리핀 정부는 이날 양국 정상간 회담을 계기로 총 7건의 문건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조사 협력 MOU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 해상교량 사업에 관한 MOU ▲사마르 해안 고속도로 건설 EDCF(대외협력기금) 차관계약서 ▲경제혁신파트너십(EIPP)에 관한 MOU ▲관광 협력 MOU 2024~2029 이행계획 ▲해양 협력에 관한 MOU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에 관한 MOU 등이다.

이 중 1986년 건설이 중단된 필리핀 바탄 원전 건설 재개 관련 MOU 체결은 올해 체코 원전 수주에 이은 윤석열 정

부의 원전 관련 성과라는 평가를 받는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분야에서 한국의 성공담에 기초해 바탄 원전 재개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며 “이를 통해 바탄 원전 재개와 관련한 면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해 필리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필리핀 현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이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에 이어 올해 체코 신규원전 건설 사업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만큼, 필리핀과 최적의 원전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마르코스 대통령도 원전과 관련해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를 희망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은 필리핀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 및 해상교량 건설, 사마르 해안고속도로 건설 MOU 등에 한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20억달러(약 2조7000억원)를 사용하기로 했다.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 사마르 해안고속도로 건설은 각각 10억달러 상당의 대형 랜드마크 사업으로, 역대 EDCF 1, 2위 규모에 해당한다. EDCF는 개발도상국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 정부에 장기·저리 조건으로 빌려주는 자금(유상원조)이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를 비롯한 역내 안보 현안에 대한 논의도 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 북러 군사협력 등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 또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한-아세안 연대구상’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취지에 공감하고, 그 이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두 정상은 필리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허가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양국간 고용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이재용 ‘전장용 MLCC 시장선점’ 주문

(삼성전자 회장)

필리핀 삼성전자 생산법인 방문  
2028년 MLCC 시장 9.5조 전망  
“혁신 이끌고 끊임없이 도전하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자동차용 전장사업을 삼성의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초격차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필리핀 칼람바에 위치한 삼성전기 생산법인을 방문해 적응세라믹콘덴서(MLCC) 사업을 점검하고 ‘기회 선점’을 강조했다.

삼성전기는 전장용 MLCC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MLCC 시장이 2023년 4조원에서 2028년 9조5000억원으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MLCC는 쌀 한 톨보다 작은 크기에 수 백층의 유전체와 전극이 겹쳐있는 첨단 제품으로, 300m / 와인잔을 채운 양이 수 억 원에 달한다.

무엇보다 전기차 시장은 MLCC 수요가 높은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폰에 IT용 MLCC가 1000개 정도 탑재되는 것에 비해 전기차에는 전장용 MLCC가 1만8000~2만개가 탑재되고, 가격도 3배 이상 높아 삼성전기는 전장용 MLCC에 사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1988년부터 MLCC를 개발·생산해 왔으며, 전장용 MLCC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2018년 중국 텐진에 MLCC 2공장을 건설했다.

이 회장은 2020년과 2022년 부산 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6일 필리핀 라구나주 칼람바시에 위치한 삼성전기 필리핀법인(SEMP HIL)을 찾아 MLCC 제품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삼성전자

성전기 사업장을 방문해 전장용 MLCC 등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그는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선두에 서서 혁신을 이끌어가자”며 “현실에 안주하거나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불확실성에 위축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자”고 당부했다.

삼성전기는 국내 수원과 부산사업장은 연구개발 및 신기술, 원료 생산을, 중국 텐진과 필리핀 생산법인을 대량 양산기지로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MLCC의 핵심 원자재를 자체 개발·제조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기차·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전장용 MLCC 매출 1조 달성 목표를 세웠다.

삼성은 전장 사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삼성전자 DS(반도체) 부문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하

만 등 전자 부품 계열사의 역량을 총 집결해 전기차 부품 가치사슬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이재용 회장은 일찌감치 전장사업의 유망성을 높이 보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 왔다. 부회장 시절인 2016년 디지털팩트(디지털 계기판)와 카오디오 분야 세계 시장 1위 기업인 하만을 인수합병한 바 있다.

하만은 인수 첫 해인 2017년 6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뒤 2023년 매출 14조3885억원, 영업이익 1조1737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회장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올리버 집세 BMW 회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글로벌 자동차업계 경영자들과 만나며 전장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ngja\_tea@

##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14억 확인”

금감원, 수시검사 잠정 결과  
은행 외 계열사 부당대출 적발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지주 경영진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 사실’을 알고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7일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의 계열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의 대출 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 측은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손태승 전 회장)이 대출 신청 및 심사 과정에 개입해 대출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전임 회장 친인척의 대출금 유용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대출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를 취하지 않아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됐다”고 봤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은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에 대해 14억원의 대출을 실행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7억원, 우리금융캐피탈에서 7억원 등 총 14억원 규모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이 발생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1월31일 손태승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였던 법인에 7억원의 신용대출을 내줬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이 대출 신청과 심사 과정에 개입했으며, 전임 회장의 친인척이 대출금을 유용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우리금융캐피탈에서는 지난 2022년 10월21일 손태승 전 회장의 장인이 대표이사였던 법인에 부동산 담보대출 7억원을 실행했는데, 이 중 일부를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이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中 수입, 시멘트값 인하위한 ‘압박용’ 분석

» 1면 ‘공사비 상승, 시멘트가...’서 계속

아파트 등 건축시 중국산 시멘트가 쓰일 날도 머지 않은 셈이다. 대한건설직자재협회는 오는 2026년부터 중국산 시멘트를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정부의 관련 발표 이후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시멘트 수입에 대해 “(수입량은) 국내 생산량 대비 미미해 긍정적인 부분이 더

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건설업계와 정부의 이같은 공조에 대해 시멘트업계는 결국 시멘트값 인하를 위한 ‘압박용’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앞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부처·유관기관과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통해 시멘트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시멘트 수입은 국내 기간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릴 위험이 크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